

중국의 보건실태와 의료현대화 계획 ②

송경섭역/국립의료원 한방과장

이 글은 1990. 10. 15-22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6차 국제항결핵 및 만성질환관리 국제회의(32개국 620명 참가) 기간중 중국 위생부에서 발표한 최근 보건의료현황을 번역한 보고서를 전제한 것으로 2회에 걸쳐 본지에 소개합니다.



필자 주요경력

- 경희대 한의대졸('67)
- 서울대 대학원졸('70)
- 원광대 외래교수('76)
- 국립군산검역소장('80)
- 국립서울정신병원 의료부('85)
- 보사부 만성병과장('88) 질병관리과장('90)
- 국립의료원 한방과장(현)

MCH와 가족계획의 기술지도

중국에서는 여성과 어린이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2/3를 구성하고 있다. 여성과 어린이의 끊임없는 건강증진이 중국 보건서비스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이다.

도시와 농촌지역에 설립된 MCH 조직의 덕택으로 90%이상의 여성들이 소독된 기구(방법)로 분만을 했다.

'여성 근로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규정' 및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임신규정'에 의하여 여성 근로자들은 5종의 기간(즉, 월경기간,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그리고 갱년기) 동안 더 양질의 보호를 받는다.

일하는 여성들은 56일의 출산휴가가 보장되어 있고, 한명의 어린이 만을 분만하는 여성들은 6개월 이상의 유급 출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여성건강진료소(임신부를 위한 장소, 수유실, 건강과 복지시설)는 많은 여성 인력이 근무

하는 공장이나 광산 등에서 이용 가능하다. 수유시간은 하루에 2회 각 30분씩이다.

정규 대중검진, 여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행해진다. 그 결과 여성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던 Hysteroptosis(자궁허수증) 및 방광염이 예방되어 왔다.

여성의 건강상태는 크게 증진되었고 그것은 모성사망률이 신중국 건국시에 1천명당 150명이던 것이 현재 1천명당 5명으로 떨어짐으로써 잘 이해될 수 있다. 중국에서 사회전체가 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관심을 보여줌으로써 어린이들의 건강문제는 우리 행정부의 큰 소명이다.

면역확대프로그램(The Expanded Program of Emunization)은 어린이들에 감염되기 쉬운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실시되어 왔다.

영·유아를 위한 체계적인 건강보호는 어린이의 과학적인 양육과 수유 및 성장측정의 대중화를 통하여 도시지역이나 농촌지역 모두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는 주로 0-7세 어린이에게 제공되고 있다.

즉, 신생아, 유아, 영아 및 허약아를 대상으로 건강기록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시의적절하게 비위생적인 습관을 수정하고 예방 및 질병치료를 수행한다.

특히, 위생부는 집단어린이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유아원 및 유치원에서 건강증진 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 1978년 이후부터 어린이 사이에 일반적으로 보여진 질병(즉, 영양결핍,

‘여성근로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규정’ 및 ‘여성 근로자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임시규정’에 의하여 여성 근로자들은 5종의 기간(즉, 월경기간, 임신기간, 출산기간, 수유기간 그리고 갱년기) 동안 더 양질의 보호를 받는다.

빈혈, 구루병, 폐렴 및 설사)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위에 예시한 질병의 예방을 위해 국가적인 계획이 세워졌다. 어린이 정신건강검진이 특정지역에서는 시행되어 왔다. 1984년 어린이 정신건강연구센터가 남경에 설립되어 지진아를 위한 의학적 치료와 교육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어린이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향상된 어린이 건강보호는 어린이 성장발달을 촉진했고, 어린이 건강수준을 높였다. 1986년 어린이 신체발육에 대한 두번째 전국적인 조사결과에 1975년의 첫번째 조사결과에 비해 각각 신장에 있어서 평균 0.5cm의 향상과 몸무게에 있어서 평균 0.5kg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전국적인 영아사망률은 개화전에 1,000명당 200명이던 것이 현재는 1,000명당 34.7명으로 감소했다.

가족계획사업은 중국의 기본 정부정책이다. 그러므로 위생부의 중요한 책임은 피임, 포괄적인 피임기구 제공, 가족계획 지식의 홍보, 가족계획에 대한 기술적인 정보제공, 가족계획 기술, 전문가의 훈련, 가족계획 시술의 질적

보장을 위한 전문가 육성 등에 중점을 둔 가족계획사업에 기술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위생부는 '가족계획의 기술적인 관리규정' 및 '가족계획 시술의 과정'을 발간했다. 가족계획 시술에 참여하는 관계자는 우선 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기술시험을 통한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시술에 참가하도록 되어 있다. 반면에 새로운 IUDs, 장·단기 속성구강피임약, 주사약 및 기구 등이 경제적, 간편,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의학교육 및 과학연구

의료인력 및 관리인력을 위한 훈련이 매우 중요하므로 의학교육기관(higher secondary medical schools)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또한 의료인력을 위한 보수교육 및 계속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7년도에는 553개소의 2차 보건학교와 275,000명의 학부 학생들로서 1949년의 130개의 의과대학과 182,000명의 학부 학생들이 있었던 때에 비하면 16.8배 증가되었다.

전국에서 의과대학(종합대학 및 단과대학 포함) 소속 보건의료관들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보수교육사업을 통해서 매년 350,000명의 보건의료인력이 훈련되고 있다.

과학의료연구는 그 기반과 규모가 매우 취약한 형편이며, 733개의 독립기관 또는 산하 보건의료연구기관이 있고 연구인력은 60,000명이 넘는다. 공중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

는 15가지의 의료관련(의료과학 및 의료기술) 자문위원회가 있으며, 422명의 자문위원들이 전국의(과학적)의학 연구 지침의 모든 측면을 거시적인 자문과 권고를 하고 있다.

중국의학 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Medical science), 중국전통의학 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중국예방의학 아카데미(Chinese Academy of Preventive Medicine) 등이 중요한 기관이라 할 수 있다. 1948년도에서 1988년까지 보건의료연구분야에서의 실적을 보면 472주제가 국가로부터 상을 수여받았고, 1,485주제가 공중보건부(위생부 내의 조직단위)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았다.

주요 연구과제로는 생리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예방의학, 전통의학, 제약적, 생물학적, 생산품과 의료장비 및 기구에 관한 것이다.

또한 부분적으로는 ▲간암의 진단·치료(현미경적)수술 ▲Choriocarcinoma에 관한연구 ▲식도암의 진전과 amine nitrate의 연관성 ▲Chlamydia trachoma의 발견 ▲중국 Plague의 natural focus에 관한 연구와 발견 ▲혈청추출 B형 간염 백신의 개발 ▲교과목 또는 관련분야의 향상을 촉진키 위한 전통 중국의학의 증진과 연구.

약무정책과 행정

제약산업은 옛날 중국에서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고, 약무정책, 행정 및 품질관리를 위한 기관이 매우 빈약하고 오직 단 하나의 약품의 품질관리를 위

**새로운 중국의 출범직후
중앙정부의 지도력하에
공중보건부는 옛날 중국의
잔재인 만연하던 아편을
근절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이루었다.**

한 국가기관이 있었다.

새로운 중국의 출범직후 중앙정부의 지도력하에 공중보건부는 옛날 중국의 잔재인 만연하던 아편을 근절시킴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이루었다.

해방이후 지난 38년간 약무정책 및 행정, 품질관리에 관한 전문시설 설립이 급속히 진전되었다.

약무정책 및 행정담당부서로는 공중보건부의 공중보건국이 있고, 전국의 도, 현, 시 및 군 단위에도 담당부서가 설립되었고, 약품관리기관들이 전국도 단위와 대부분의 현과 시에 설립되었다.

현재 약무정책과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은 1,900명이고 1,647개의 약품의 품질관리기관과 18,000명의 기술자들과 군단위에는 1,100개의 기구들이 있다.

약품관리 및 지도감독을 위한 감시망은(network)약품관리 및 행정을 맡고 있는 기관들의 집중적인 노력을 유도하여 제약산업개발의 강화와 약품의 효율적인 활용 및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였다.

“중국의 약품행정 강령”이 1984년 7월에 공포되었고, 1985년 7월 1일에 발

효되었다. 동 강령의 공포 및 시행은 법에 의한 약품관리 및 행정업무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되었다. 동 강령의 약정에 따라서 공중보건부에는 약무정책 및 행정국이 설립되었고, 각 도단위, 현·시단위, 군단위에는 약품관리 및 행정을 위한 기관들이 설립되어서 약품의 품질관리와 지도·감독 및 감시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이들의 업무의 몇몇 특수한 측면을 보면 다음과 같다.

- (1) 제약공장과 관련기업들이 승인받지 않으면 약품을 생산 또는 처리할 수 없도록 조치하는 것을 통한 관리.
- (2) 보건전문가에 의해 반드시 승인되어야 하는 조제품(술약, 유제 따위)과 같은 병원에서 분비되는 약품에 대한 관리.
- (3) 신약의 승인과 기사판되는 약품에 대한 재검사.
- (4) 국가약품 기준 설정.
- (5) 공장, 시장, 안정제(narcotic drugs)와 정신질환 관련제제와 같은 특수약품의 수출, 수입과 활용에 대한 관리.
- (6) 약품포장, 상표와 광고에 대한 관리.
- (7) 수입약품의 품질관리.
- (8) 동 강령을 위반하는 어느 행동도 신중하게 처리 한다.
- (9) 기관들에 의한 “약품행정 강령”의 시행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감독자들을 임명.

우호적인 국제협력

보건분야의 기술교류를 증진키 위하여

여 세계보건기구(WHO)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도모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1987년 중국의 정부 보건관계관들이 5개 대륙 20개국을 방문하여 양측간의 과학 및 기술분야의 공식적인 교류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협정을 맺었다.

1963년 이후 25년간 중국은 요청에 의거하여 의료팀과 침술대표들을 60여 개국에 보냈다. 그 외에도 중국 의사들이 유엔의 지원봉사자로서 4개국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일한 총 의료요원수는 약 10,000명이고, 이들이 치료한 각종 질환자는 약 1억 7천만명이 된다. 현재 49개국에서 아직 1,300명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은 모국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여러 어려운 점을 극복하여 국제주의의 철학(spirit?)을 드러내 보여 캐나다인 인사였던 Norman Bathune의 좋은 예처럼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들이 외국에 거주하는 동안 그 지역 국민과 진실한 우의를 갖게 되었고, 의료요원들에 의해서 중국과 거주하는 국가간의 이해와 우호를 증진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개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었다.

중국과 WHO간의 기술협력은 의료협력의 비망록(외교각서)에 서명한 후 급속히 진전되어서 1978년과 1982년에 양자간 공동협정이 체결되었다.

지난 10년간 WHO는 중국에서 총 48개의 보건의료기관을 협력센터로 지정하고 약 200종의 훈련과정을 외국인 전

현재 중국은 보건분야를 재편성하고 있다. 중국의 보건현황 및 자원의 활용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거하여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방서비스와 농촌지역을 위한 보건인력의 개발들을 위하여 2개의 매우 주요한 정책을 확립하였다.

문가를 활용하여 운영하였으며, 기술 및 기타 다른 자원을 투입하여 왔다. 같은 기간 동안 119명의 중국 의료전문가가 WHO의 자문위원으로 임명되어서, 연간 50회 이상의 각종 기술토의에 참석하여 의료과학의 개발증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WHO의 "2000년까지 전 인류의 건강을"이라는 세계적인 전략목표를 적극 지지하여 중요한 비증을 두어서 WHO에 최대한의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공식적·비공식적 교류 및 협력은 선진외국의 기술 및 기구의 소개 뿐만 아니라 중국의 기술요원의 훈련을 촉진키 위해서 외국 및 의료요원간과 중국 국민간의 우호증진이 시작됐다.

현재 중국은 보건분야를 재편성하고 있다. 중국의 보건현황 및 자원의 활용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거하여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방서비스와 농촌지역을 위한 보건인력의 개발들을 위하여 2개의 매우 주요한 정책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률을 통한 보건서비스의 개발을 보장키 위한 것도 있다.

"균등과 공동의 이익, 실제적인 결과의 보장, 다양화와 공동개발"의 원칙

에 의거하여 좀더 많은 나라와 우호적인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바램이며, 이로 인하여 WHO의 “2000년까지 전인류의 건강”을 이라는 전략목표의 현실화와 남·남 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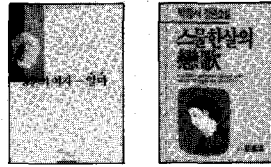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는 중국이라는 대륙적 기상과 인구, 자극적, 사고와 현실에 입각한 국민보건향상, 시설,약품, 의료(중의학 포함)의 현대화를 위한 과정을 단편적으로 파악하고 이웃나라 큰 시장성을 재인식하면서 앞으로 보건분야, 의료분야에 대한 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인 바, 국내 관계기관과 인사들의 진정한 관심과 분야별 각성을 촉구하고 싶다.

의료전문분야 홍보용 책자 제작



결핵협회에서 의료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들에게 결핵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해당분야에서 업무수행중 결핵예방과 발견 및 치료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교자 의료 전문분야별로 “결핵균검사”, “폐결핵의 치료”, “미국의 결핵 퇴치계획과 전략”의 3가지(각 5,000부)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하였다. (규격/국판)

새로나온 책



영혼의 여자-알마

한남자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女人-알마. 그 여자의 이야기가 김정충씨의 번역으로 “작가정신”사에서 발간되었다. 자전적 형식으로 쓰여진 이 책은 세기의 거장 구스타프 말러의 아내인 알마 마리아 신들러가 자신이 말러를 위해 어떻게 자신을 완전히 소모했으며, 남편의 천재성을 피어나게 했는지 잘 묘사되어 있다. 독자들은 이 책에서 아름다운 한 영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신국판(201쪽) / 값 3,000원

스물한살의 연가

여고시절에서 대학시절까지 스물한살의 여자가 숙명처럼 겪는 눈같이 희고 고운 사랑이야기!! 라는 부제가 붙은 박광서씨의 장편소설 “스물한살의 연가”가 도서출판 ‘친우’에서 발간되었다. 수준높은 사랑소설을 발표하여 우리의 삶에 나름대로의 한 지표를 설정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가 이 한권의 책에도 잘 나타나 있다. 신국판(292쪽) / 값 3,500원